

10월의 기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DCEM의 국내외 선교사역이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2.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3.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패배와 절망이 변하여 승리와 축복이 되게 하신 주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4.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5.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니,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6. 나의 신앙의 열심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 아멘 -

10월의 대만 성회 안내

2020년 10월 28일 및 29일 대만 타이베이 신띠엔 신타오교회 (Hsin-Tien Covenant Church, 담임: Wayne Chang 목사) 에서 열리는 축복 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이시은,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Jerry Crenshaw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

미국의 대니 로페즈라는 여성은 47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생불능의 뇌사 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그 운명이 아기의 운명과 함께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산소호흡기 등 생명보조장치를 모두 떼도록 하고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그 때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들이 심하게 꿈겨렷습니다.

이와 동시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뇌사상태였던 대니 로페즈 의 뇌파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파가 완전히 죽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차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뇌파가 살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 여인은 뇌사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예측을 깨고 무의식상태에서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여인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더니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깨어난 후 자신의 체험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기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고,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너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라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셔서 이 아기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는 죽었는데 그 영이 속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그녀가 뇌사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기를 순산하고 그 모친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뇌사상태에 있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있어봐야 빛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죽음이 있어봐야 생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 죽을 지경일 때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14년 9월 “러시아 지도자 4차원영성 콘퍼런스”



러시아는 구소련의 정권하에서 종교가 억압되었지만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활발한 종교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활동 인구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난 2014년 9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공연장에서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러시아 지도자 4차원영성 콘퍼런스가 열렸다. 블라디보스톡 오순절협의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콘퍼런스는 ‘주여 러시아를 부흥케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러시아 전역에서 목회자와 기독교 리더 3천여 명이 참석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조용기 목사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성회를 주최한 블라디보스톡 오순절협의회장 블라드미르 술라코프 목사는 1993년 블라

디보스톡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의 성회에 참석해 하나님을 영접한 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토대로 러시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러시아 성도들을 데리고 한국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하며,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영성을 충전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북음화의 소명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그들은 조용기 목사의 방문을 통해 러시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성회를 인도한 조용기 목사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전하며, “긍정적인 생각, 꿈, 믿음, 말이 기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2014년 러시아 성회는 2012년 블라디보스

톡 오순절협의회 회원들이 조용기 목사를 직접 찾아와 요청하여 개최된 성회였다. 이토록 간절히 기다린 성회였지만 성회 당시 러시아 정부의 제재가 있어 성회 준비와 진행이 쉽지 않았다.

주최측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20년만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고대하며 경륜장을 빌려 대형집회를 준비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정부의 대형집회 취소 요구로 갑작스럽게 사전에 섭외한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급박하게 변경되며 돌아가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가득했던 성회로 기억되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블라디보스톡을 가득 채웠던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러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함께해야 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는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29절)

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깐 나 대신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첫째로 속죄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써 그 모든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주로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물질로써 보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제사들을 보면 모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는 피로 씻고 피로 덮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히 10:3-4)고 말합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3. 예수님의 보혈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질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들어온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히 4:15-16)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보혈로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영육 간에 병든 것을 고칠 받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 흘림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 에덴에서 흘린 피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동산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벌거벗게 되고 그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수치를 덜어주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에게 입히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만약 50년형을 선고받았다면 50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종신형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인간은 살아서는 자기 죄를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나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이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종교적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구약의 제사 제도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

특집 : 조용기 목사의 대륙 별 해외 성회 ②

유럽 (I)



▲ 1967 영국 런던에서 부활절예배를 인도하는 조용기 목사.



▲ 1995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설교 중인 모습.



▲ 2002년 런던성회를 찾은 DCEM 총재 조용기목사와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 2005년 독일 베를린 성회.

유럽은 서울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인 블라디보스톡을 제외하고는,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비행해야 닿을 수 있다. 지금처럼 직항 운항이 많지 않던 시절부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오직 ‘유럽의 복음화’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지구 반대편으로의 고된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조용기 목사는 1967년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럽 땅의 17개국에서 55회의 성회를 인도했다. 성회에는 총 80만 여명의 영혼들이 참석해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 오래 전 성회들을 비롯한 다

수의 성회에서는 참석인원이 집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숫자의 인원이다.

1967년 4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를 인도한 조용기 목사는 그 후로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단순하고 명료해 청중을 사로잡았고 현지 성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 결과 1976년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선교를 위한 순복음세계선교회 유럽연합회를 조직했고, 1977년에는 베를린에 신학교

를 설립하여 조용기 목사의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유럽 복음화 사명을 향한 조용기 목사의 열정과 그에게 기쁨 부어주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유럽 전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있다. 하지만 현재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유럽에 이슬람이 강세하며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다. 유럽 땅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로 힘을 보태야 한다.

기획·특집 대만을 영적 잠에서 깨우라 오는 10월 28, 29 양일간 대만서

내달 10월 28일, 29일 대만 타이베이 신띠엔 싱타오교회 (Hsin-Tien Covenant Church)에서 DCEM 총재 조용기목사 초청 축복성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초청한 신띠엔 싱타오교회는 장마오송 목사가 1976년 목회를 시작, 교회가 성도 70명에서 더 이상 부흥하지 않자 고민하던 차에 목회 3년째인 1980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처음

방문해 교회 성장을 배우기 시작하여 DCEM 총재 조용기목사를 수 차례 초청해오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는 대만에서 30여 개가 넘는 지교회가 설립되는 대만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장마오송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대만 차세대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성공적인 성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중보를 바란다.

